

제주도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양기철-김원철-김남진-김영길

기획조정실장 서귀포시 부시장 혁신산업국장 교통항공국장

총 795명 규모로 상반기보다 76명 늘어... 승진 198명 3급 이상 대거 명퇴·연수와 5급 이상 직제 확대 영향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 양기철 이사가 관이, 서귀포시 부시장에 김원철 서기관이 발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하반기 정기인사 명단을 9일 발표했다. >> 관련기사 2·12·13면

오는 1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 대상은 총 795명으로 이 가운데 198명이 직급 승진했다.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거 명에 퇴직하거나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조직 개편으로 5급 이상 사무관 자리가 20개 이상 늘면서 하반기 승진 인원은 상반기 122명보다 무려 76명이 늘었다.

명퇴한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후임으로는 양기철 이사관이 임용됐다. 전임 도청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지낸 양 이사관은 오영훈 도청에서 교육과 파견을 오가다 2년여 만에

도청으로 복귀했다.

2·3급 복수 직위인 안전건강실장과 의회사무처장은 현 조상범 실장과 강동원 처장이 계속 맡는다.

국장급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부시장에 김원철 총무과장이 승진 발탁됐고, 혁신산업국장에 김남진 RIS사업단 총괄운영센터 부센터장이 임용됐다. 전임 양제운 국장은 공공정책연구위원장으로 옮긴다.

교통항공국장에는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이 직위 승진 형태로 임용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양창현 건설주택국장 후임으로는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이 승진 발탁됐다.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관광교통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이동했으며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센터(JDC)로 파견을 간다. 이 단장 후임에는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이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으로 배치됐다. 제주RISE센터 부센터장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는 고선에 환경정책과장과 양승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이 승진 임명됐다. 신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에는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이 승진 발령됐고, 오상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인사에 직급 승진하며 직무대리 포리표를 땀다. 이상현 부이사관은 제주개발공사로 파견을 간다.

이밖에 신설된 노동일자리과장에는 문원영 사무관이 승진 임명됐으며,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장으로는 장철원 서기관이 발령됐다.

이와 함께 4급 직위인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과 해양수산연구원장에는 양창희 지방농촌지도관과 강봉조 해양수산연구관이 직위 승진 형태로 발령됐다. 이상민기자



9일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부대행사로 열리는 '국제 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출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어제 개막

50개국 150여개 기업 참여

전기차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선박까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IEVE 2025)'가 9일 제주에서 막을 올렸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세계EV협의회(GEAN)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행사다.

50개국 15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올해 엑스포는 12일까지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된다. 30여 개에 달하는 전문 컨퍼런스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어우러져 기술, 정책,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15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전시는 전기차, 버스, 이륜차, 배터리, 충전기 등 핵심 부품과 소재는 물론 자율주행·로보틱스·스마트농업·신재생에너지·UAM 등 융복합 기술을 총망라한 산업 생태계를 선보이고 있다.

또 글로벌 투자·비즈니스 매칭, 공동 연구개발 및 계약 체결 등 실질적 B2B 성과 창출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대학생 EV 자율

주행 경진대회, AID론경진대회 등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김대환 조직위원장은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른기자 ejoh@ihalla.com

양 행정시 국장급 대부분 '유임'

제주시 578명-서귀포시 300명 규모 인사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9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행정시 별 4급 승진자가 각각 1명 뿐이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제외한 모든 국장은 유임됐다.

제주시는 서기관 승진 1명과 사무관 승진의결 11명을 포함해 승진 220명, 전보 261명, 인사 교류 48명, 신규임용 48명, 파견 1명 등 578명

에 대한 인사를 예고했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제주도로 진출했고, 내부 공모직위로 지정된 일도2동장에는 강경임 공보실장이 발탁됐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식품안전과장 직무대리에 김철영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을, 감염예방의약과장에는 보건직렬인 박주연 위생관리과장, 감귤유통과장에는 농업 직렬의 양

정화 조천읍장을 각각 배치했다.

서귀포시는 서기관 승진 1명, 사무관 7명 승진 의결 등 승진 112명, 전보 159명, 제주도 교류 29명 등 총 300명 규모로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에는 오철중 총무과장을 승진 발탁했다. 내부 공모한 송산동장에는 홍기확 공보실장이 발령됐다.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에는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이 승진 임용됐는데,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의 의료기술직 사무관 승진이다.

문마숙기자 ms@ihalla.com

소화전 주변·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만연... 4면 / 119 인명구조 공동주택 최다... 5면

2025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산방산용머리해안지질트레일 개최를 축하합니다

DESIGN SOLUTION

광고기획 / 행사기획

현수막·실사출력·배너·LED채널간판
옥외광고물·간판·각종사인물제작시공
인테리어·리모델링
전시대·행사부스·집기 제작·CI·BI·패키지



디자인솔루션 아이엔지기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길 1(이오이동 782)
T. 064.724-7177 F. 064.724-7178
E-mail. design6973@hanmail.net